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컬렉션에 나타난 플릭서스
퍼포먼스의 연출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宋 受 珉

2015年 8月

컬렉션에 나타난 플릭서스 퍼포먼스의 연출

指導教授 張 愛 蘭

宋 受 珉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8月

宋受珉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장 현 주



委 員

김 현 미



委 員

장 애 란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8月

The Direction of Fluxus Performance
Shown in Collections

Su-min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Ae-Ran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August 2015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그림 목차
표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1
II. 이론적 고찰	3
1. 플릭서스의 개념	3
1) 플릭서스의 발생	5
(1) 플릭서스의 12가지 사상	6
2) 플릭서스의 형성과정	8
3) 플릭서스 경향에 대한 사례	9
(1) 백 남준 예술의 플릭서스 경향	9
(2) 오노 요코 예술의 플릭서스 경향	9
2. 퍼포먼스의 개념	10
1) 해프닝(Happening)	11
2) 이벤트(Event)	12
3) 퍼포먼스의 전개과정	12
(1) 백 남준	12
(2) 요셉 보이즈	12
3. 아방가르드패션	13
III. 플릭서스 퍼포먼스의 컬렉션 연출 분석	14
1.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	14
2.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19
3. 후세인 샬라얀 (Hussein Chalayan)	26

IV. 결 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1

그림 목 차

<그림 1> 아방가르드 남자스타일	1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 아방가르드 남자스타일	1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3> 얼굴 없는 미녀들 아방가르드패션, 복면수영복	13
출처: (http://photo.chosun.com)	
<그림 4> 아방가르드패션	1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5> 올가을엔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13
출처: (http://designflux.co.kr)	
<그림 6> 가을엔 아방가르드	1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7> John Galliano 2004 S/S Paris	15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8> John Galliano 2006 S/S Paris	15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9> John Galliano 2006 S/S Paris	16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0> John Galliano 2008 S/S	16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1> John Galliano 2012 F/W Paris	17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2> Alexander McQueen 98 S/S	19
출처: (런던 컬렉션 Vogue Korea 별책부록 1998/12)	
<그림 13> Alexander McQueen 2004 F/W Paris	20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4> Alexander McQueen 2009 S/S Paris	20
출처: (http://www.vogue.co.uk)	
<그림 15> Alexander McQueen 99 S/S	21
출처: (http://cosmopolitan.joins.com)	
<그림 16> Alexander McQueen 2000 S/S 컬렉션	22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7> Alexander McQueen 2006 F/W Paris	2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10 S/S	23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19> Hussein Chalayan 99 S/S 런던 컬렉션	26
출처: (런던 컬렉션 Vogue Korea 별책부록 1998/12)	
<그림 20> Hussein Chalayan 2000 S/S	28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	
<그림 21> Hussein Chalayan 2000 F/W	28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	
<그림 22> Hussein Chalayan 2000 F/W	29
출처: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	
<그림 23> Hussein Chalayan 2001 S/S	29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4> Hussein Chalayan 2003 F/W	30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5> Hussein Chalayan 2007 S/S	30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6> Hussein Chalayan 2007 S/S	31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7> Hussein Chalayan 2007 F/W	31
출처: (http://www.style.com/fashion-shows/)	
<그림 28> Hussein Chalayan 2008 S/S	32
출처: (http://www.waldemeyer.com)	

표 목 차

<표 1> 연구의 흐름도	2
<표 2> 아방가르드패션	13
<표 3>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의 컬렉션의 분석	18
<표 4>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의 분석	24
<표 5> 후세인 살라얀 (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의 분석	33

국문 초록

21세기 현대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중복합문화(multicomplex complex culture)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대중으로 하여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극적이며 사회적 일탈이 가미된 새로운 문화 형성 및 대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로 인한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 예가 플럭서스 퍼포먼스라고 한다.

사회적 트렌드 형성의 예술을 추구하는 플럭서스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하여 현대의 예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플럭서스 퍼포먼스가 컬렉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컬렉션에 나타나는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98S/S에서 2010 S/S에 이르기까지 패션사이트 Style.com과 wkorea.com 을 참고하였다.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연구방법으로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패션문화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샬라안(Hussein Chalayan) 3인의 컬렉션을 연구하였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컬렉션에서는 타이트하며 체형의 윤곽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며, 화려한 소재들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살아있는 빅토리안 인형을 연상시키듯 하얀 스타킹과 리본이 매달린 퍼포먼스나 과장되게 부풀려진 투명한 소재의 소매, 그리고 솜사탕과 같이 끝없이 위로 부풀려진 헤어 등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보여주는 세계는 사랑스러웠다. 메이크업과 모델들의 표정 그리고 음악 등 마치 인형연극을 보러 온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쇼의 여러 요소들을 조화롭게 응용하였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며 단일성을 띤 퍼포먼스로서의 요소가 충분했고, 알렉산더 맥퀸의 모델은 즉흥적으로 묘사된 단 하나의 의상을 입은 채 무대 뒤로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더 이상 동일 한 것으로는 다른 컬렉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 샬라안(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에서는 기존의 패션쇼에서 들려지던 하우스뮤직과는 다르게 흰색으로 감싼 합창단이 라이브로 연주한 배경음악이 돋보이며, 음악과 패션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 총체예술로서 설명되고 있다.

결론으로

첫째, 플릭서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플릭서스는 전통적, 보수적 순수 예술에 반기를 드는 예술의 사회화, 예술의 대중화, 예술과 생활의 재결합이라는 반 예술, 비예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98S/S에서 2010S/S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플릭서스 퍼포먼스적 요소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타이트하면서 체형의 윤곽선을 그대로 드러내주며, 화려한 소재들과 환상적인 조화를 표현하였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모델에게 단 하나의 의상을 입힌 채 무대 뒤로 사라지게하며, 이 패턴은 더 이상 동일 한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며 즉석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즉흥성을 보여주고 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음악과 패션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 총체예술로서의 플릭서스 퍼포먼스에 잘 나타난 컬렉션으로 설명되고 있다.

셋째,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에 나타난 플릭서스 퍼포먼스를 분석한 결과, 패션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패션 퍼포먼스로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고, 고정화된 개념을 없애고 독특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객들은 관조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연극과 같은 컬렉션의 장르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교훈을 얻음으로서 우리 컬렉션에서도 교훈삼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실험 예술가들, 건축가들, 작곡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가까이 또는 변두리에서 플릭서스에 합류해 오고 있다. 추후 플릭서스 퍼포먼스가 컬렉션에 나타난 총체예술에 대해서 심화된 연구를 하고자 한다.

Key words : 플릭서스, 퍼포먼스, 컬렉션, 대중심리, 패션문화, 총체예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중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다. 21세기 현대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첨단 기술개발에 의한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과 상상과 시공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중복합문화(multicomplex complex culture)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공공으로 하여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자극적이고 일탈이 가미된 새로운 문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플렉서스 퍼포먼스의 선행연구를 차용하여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샬라안(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을 분석 연구하여 반 예술을 추구하는 플렉서스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있고 현재의 예술문화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인 패션 트렌드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함에 있다. 모델들이 천장에서 내리는 눈, 비등을 맞으면서 무대 위를 활보하는 퍼포먼스나, 무대의 움직임과 리모트 콘트롤에 의해 해체되어지는 첨단과학이 도입된 의상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컬렉션의 퍼포먼스적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플렉서스의 특성이 현대 컬렉션에 투영된 플렉서스 퍼포먼스의 예술성과 패션문화에 나타난 현상이 대중심리가 극적으로 반영된 플렉서스 퍼포먼스를 연구하여 국내 컬렉션업체의 사회적 트렌드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효율적인 컬렉션의 기획과 전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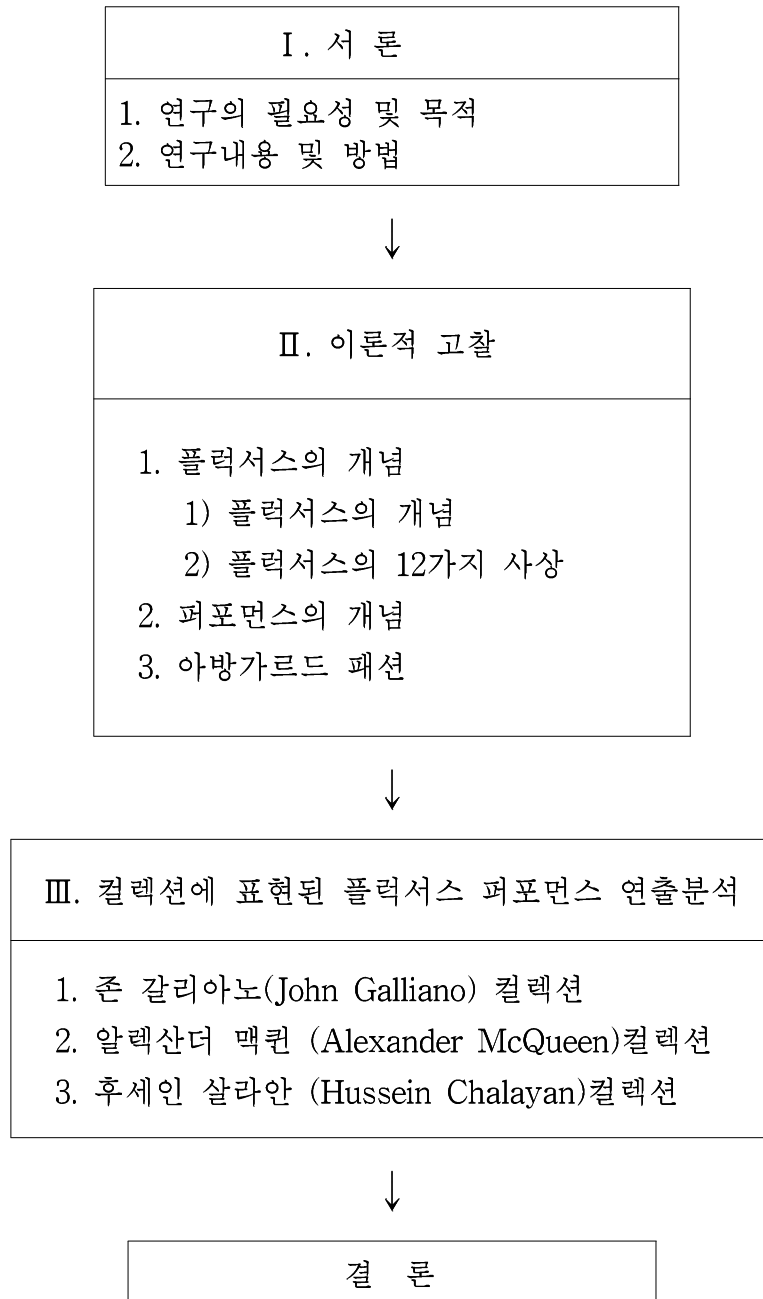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 플렉서스에 대한 국내의 단행본 및 선행연구, 학위논문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플렉서스의 개념 및 형성과정, 플렉서스의 12가지 사상을 고찰한 후 12가지 사상 중 컬렉션의 퍼포먼스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주의를 발췌하여 컬렉션의 퍼포먼스 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한다. 또한 플렉서스의 실험주의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는 실험적인 패션디자인을 발표한 컬렉션을 퍼포먼스적 요소로 연출한 디자이너 중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샬라안(Hussein Chalayan)을 중심으로 98년S/S부터 2012년 F/W까지 인터넷 패션 사이트에서 퍼포먼스로 연출된 컬렉션의 흐름을 분석 및 해석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흐름도



II. 이론적 고찰

1. 플럭서스의 개념

20세기 전문가의 시대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문화와 생활은 윤택하여 졌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고출력의 자동차, 고효율의 가전제품, 핵발전소 등에 제어를 할 수 없어 인간에게 풍요로움 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시간이었다면 21세기 융합의 디지로그(Digirog) 시대에서는 사이버네틱스¹⁾가 작용을 하여 자연친화적 과학기술개발이 우선이 되고 인간들의 정신도 과학과 기술, 사회, 문화에서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삶과 영유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통섭의 시대로 진보하게 된다.²⁾전위 예술이란 선두·선구의 뜻으로 프랑스의 군사 용어인 ‘전위(부대의 전초로서 선발된 소수 부대)’에서 나온 말이다. 정치적 의미로 오늘날에는 좌익과 같은 말로, 특히 예술상으로는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대한 반항, 혁명적인 예술정신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 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시대의 급진적인 예술 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말로 추상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개념미술, 포스트 모던 예술 등 19C 후반부터 20C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표현 양식의 예술들을 일컫는다. 플럭서스는 다양한 근원을 가진 복합적인 미술운동이다. 플럭서스의 외형을 만들고 형식을 부여한 조지 마치우나스는 플럭서스에 로마의 서커스, 바로크의 광대극 그리고 비잔틴의 성상파괴주의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시켰다. 또한 이 운동은 다다와 미래파의 음성시, 서체 추상, 미래파의 브뤼탈리즘, 루이지 루솔로의 ‘소음의 예술’ 다다 극장, 촌극, 마르셀 뒤샹과 레디메이트 개념, 그리고 좌익예술전선(LEF)과 신좌익예술전선 러시아 구성주의자 등에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시대의 급진적인 예술 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말로 추상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개념미술, 포스트 모던 예술 등 19c 후반부터 20c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표현 양식의 예술들을 일컫는다.³⁾ 예술가 자신이 자기작품의 주체인 동시에 그 대상이 된

- 1) 인공두뇌학-사이버네틱스 또는 인공두뇌학은 일반적으로 생명체, 기계, 조직과 또 이들의 조합을 통해 통신과 제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통신 산업 혁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간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기술혁명 은 또 다른 개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로봇디자인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정요소의 결정점에 관한 연구: 문화적 metal model의 개념을 응용한 표정표현을 중심으로, 이상호(2002)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24.
- 2) 차재훈(2011)시각예술에서 통합적 사고의 의미와 특징연구; 연구자의 <차이>연작과 통섭적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44.
- 3) 김아름(2010) 오노요코의 전위개념과 지시문 작업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예술,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려지기도 한다. 해프닝, 이벤트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행위예술이라는 개념은 해프닝, 이벤트, 신체미술, 퍼포먼스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인간의 원초적 표현 욕망을 연극적으로 표출한다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원시종합예술(balled dance)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20세기에술에서 그 전도를 미래주의(Futurism)나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 (Surrealism)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1950년대 해프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⁴⁾ 플럭서스란 이념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릇이었기 때문에 다른 미술 운동이나 사조처럼 플럭서스의 작업들을 특정한 내용과 형식으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그들의 다양한 작업 내용을 묶어낼 만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통칭 플럭서스의 기본 개념 혹은 기준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플럭서스 작가이며 이론가였던 딕 히긴스로, 그는 1982년 <플럭서스: 이론과 수용> 에서 플럭서스의 중심사상을 이루는 9가지 기준- (국제주의, 실험주의와 이상파괴주의, 인터미디어, 미니멀리즘, 예술과 삶의 이분법 해소, 함축성, 놀이정신, 순간성, 특수성)을 제시 하면서, “플럭서스 작업이나 계획이 얼마나 플럭서스 적인가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고 밝혔다. 또, 켄 프리드만은 <플럭서스와 친구들> 전시 도록에서 딕 히긴스의 9가지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12가지 기준(글로벌리즘, 예술과 삶의 통합, 인터미디어, 실험주의, 우연성, 놀이정신 등) 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들은 플럭서스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이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작용하여 플럭서스 예술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한다⁵⁾. 전위예술의 전위인 플럭서스를 한마디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다양한 생각과 폭넓은 내용, 무수한 형식들을 경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예술이다. 플럭서스의 성격은, 그 말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임의 뜻을 내포하듯,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⁶⁾대표적인 플럭서스예술가로는마키우나스,히긴스,케이지⁷⁾(John Cage), 보이스(Joseph Beuys), 블록(Rene Block), 무어맨⁸⁾(Charlotte Moorman), 존슨(Ray Johnson), 백남준(白南準) 등이 있다.

플럭서스는 ‘Fluxus’ 단어가 지닌 ‘흐름’, ‘변화’, ‘끊임없는 움직임’이란 의미가 보여 주듯이 그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플럭서스를 명명(命名)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한 조지 마키나우나스(George Maciunas))에 의하면 플럭서스를 사회적 집단주의, 반(反)직업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예술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4) 박대근(2002) 추상표현주의와 행위예술에 있어서 행위성에 대한 연구: 행위예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3-34.

5) 출처: 김홍희, 서울 플럭서스

6) 차주만(2003) FLUXUS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p.32.

7) 케이지 (John Cage) 1912. 9.5~1992.8.12 미국의 작곡가

8) 무어맨(Charlotte Moorman) (November 18, 1933 - November 8, 1991)

또, 플럭서스의 역사적 운동으로서의 면보다 정신력인 면을 높이 사는 플럭서스 작가 딕 히긴스(Dick Higgins)는 “플럭서스는 운동. 역사의 순간, 하나의 조직이 아니다. 플럭서스는 아이디어, 일종의 작품경향, 사는 방법이자 작품 활동을 통해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피력하였다^{9),10)}

1) 플럭서스의 발생

플럭서스는 1962년 9월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3주에 열린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을 통하여 ‘플럭서스’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따라서 1962년을 플럭서스의 공식적인 탄생 연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2년 까지를 플럭서스의 형성기로 본다. 이시기에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의 많은 작가들이 플럭서스 경향의 작품과 아이디어로 활동했으며, 이 작가들의 상당수가 향후 플럭서스를 형성하게 된다¹¹⁾. 20세기 초 전쟁에 대한 증오와 과거 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무조건적 파괴를 부르짖는 다다적 반항정신을 물려받은 플럭서스는 다다와 뒤샹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는 삶의 예술을 지향하고,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소통의 예술을 회구하였던 것이다. 과거의 오페라나 연극은 허구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재현하였지만 플럭서스는 현실의 진면목을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쉽고 재미있는 대중 예술의 유희를 수반하는, 고저의 특성을 함께 갖는 ‘고급형 대중 예술’ 혹은 ‘대중 지향적 고급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¹²⁾ 1958년의 뉴욕의 뉴 스쿨 강의와 다름슈타트 강의를 통해서도 당시 시대를 앞지르는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예술가들에게 철학적 배경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개인적 탐구를 조장하였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다양성, 변화, 무작위, 과정 등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하는 미학적 가능성을 터득하였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결정성’에 있다. 케이지적 비결정성 개념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예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간 속에 포함되는 관객도 하나의 예술적 사건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미학으로부터 관객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해프닝 미학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뒤샹 작업의 핵심을 이루는 우연 작동법 또는 우연 실험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뉴욕에서는 뉴 스쿨 출신 알란 카프로, 알 헨슨 등이 미국 해프닝을 형성하게 되고, 라 몬테 영과 조지 마키우나스의 주도하에 뉴스쿨 출신의 딕 히긴스, 잭슨 맥

9) 백샘이(2002) 플럭서스 예술을 응용한 21세기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석사학위 논문. pp.5-6.

10) Wiesbaden Kassel, Wiesbaden Fluxus(1962-1982), Berlin: Berliner Künstlerprogramm des Daad, 1982). p.79; 김홍희, 「백남준 해프닝, 비디오 아트」 디자인 하우스, 2000, pp.37-38.

11) 이근용(2003), 플럭서스 활동과 특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pp.5-6.

12) 출처: <http://gum.kookmin.ac.kr>.

로, 조지 브레히트 등이 역사 이전의 플럭서스를 형성하게 된다. 같은 시기 독일에 서는 벤자민 패터슨, 백남준, 볼프 보스텔이 플럭서스를 예고하는 각종 해프닝을 벌여나간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1958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플럭서스 태동의 역사적 시점을 1958년으로 잡는 이유이다. 플럭서스 예술가의 대부분은 뉴욕(New York) 소호(Soho)지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1963년에 조지 매키어너스(George Maciunas)가 플럭서스의 본부를 창설했고, 딕 히킨즈(Dick Higgins)는 유명한 Something Else Press를 창설하여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중요한 플럭서스의 책들을 발간하였다.¹³⁾ 딕 히킨즈(Dick Higgins)는 1981년 그의 저서 「플럭서스: 그 이론과 수용」에서 플럭서스 예술의 특징을 규정하는 9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 실험주의 및 우상파괴주의(Experimentalism & Iconoclasm)
- 인터미디어(Intermedia)
- 미니멀리즘(Minimalism)
- 인생/예술 이분법의 해소
- 함축성(Implicativeness)
- 놀이 또는 익살(Play or Gag)
- 순간성(Ephemerality)
- 특수성(Specificity)

모든 플럭서스 작품이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작품이 9가지 기준을 다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어느 작품은 더욱 플럭서스적이다 라고 하킨스(Dick Higgins)는 말한다.¹⁴⁾

(1) 12가지 플럭서스의 사상

12가지 핵심 사상들이 플럭서스의 기초로서 보여 질수도 있다. 1981년, 딕 히킨스(Dick Higgins)는 플럭서스의 중심으로서 제시한 9개의 기준에 대한 목록을 썼다. 딕(Dick Higgins)과 프리드만 둘 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특징과 특성의 원초적 감으로 용어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규정이 아니라 서술을 의도했다. 플럭서스란 용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상과 예술적가치가 스며든 음악이라든가 미술 심지어 컬렉션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음에 진정한 플럭서스의 중심사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쾨 프리드만에 의해 집약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백샘이 (2002) 플럭서스 예술을 응용한 21세기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0.

14) 차주만 (2003) FLUXUS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p.34.

켄 프리드만이 설정한 12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주의 (Globalism)

글로벌리즘은 플럭서스의 중심이다. 플럭서스는 사회적 목적이 조화로울 때 다른 사고의 대화를 환영한다.

② 실험주의, 과학적 공동연구 작업, 우상파괴주의 (Experimentalism, Research Orien-rarion, Iconoclasm)

③ 인터미디어(Intermedia)

예술과 인생의 인위적(人爲的) 경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핵심적인 예술 개념을 수립한 딕 히긴스 Dick Higgins 는 1966년 자신의 출판사 썸싱 엘스 프레스에서 발행한 “썸싱 엘스 뉴스 레터” 제1호에 유명한 논고 ‘인터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미디어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다.¹⁵⁾

④ 단순성과 절제(Simplicity & Parsimony))

⑤ 예술과 인생의 통합(Unity of Art and Life)

예술과 삶의 일치는 플럭서스 정신의 중심이다. 플럭서스가 설립되었을 때, 중심 목표가 예술과 삶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팝아트와 해프닝의 시대에 적절한 언어의 종류였다. 설립중인 플럭서스 서클은 예술과 삶이 양분된 것으로 보여진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추구했다. 오늘날, 플럭서스가 예술화시킨 급진적 공헌이 허물어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⑥ 우연(Chance)¹⁶⁾

⑦ 놀이정신 (Playfulness)

장난기는 초기이래로 플럭서스의 일부분이 되어왔다. 장난기의 개념의 일부는 조우크, 게임, 퍼즐과 개그와 같은 용어로 대표되어왔다. 플럭서스에서 개그의 역할은 때때로 지나치게 강조되어왔다. 이것은 이해 할만하다. 인간들은 가장 뚜렷한 차이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형태에 의해 양식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플럭서스가 부상할 때, 예술은 종교에 대한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대리자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고방식의 영향 하에 있었다. 예술은 너무나 심하게 개념, 형식과 스타일의 경직에 영향을 받아 불손한 플럭서스의 입장은 작은 엘리베이터속의 시끄러운 소음처럼 두드러졌다. 불손한 스타일의 가장 가시적인 측면은 개그에 대한 강조였다. 개그와 조우크보다 더 유머에 대하여 더욱 더 그랬고, 유머보다는 장난기에 더욱 더 많았다.

⑧ 함축성(Implicativeness)

함축성은 사상적 플럭서스 작품이 보다 더 많은 작품들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엘레강스와 인색함의 개념에 가깝고 발달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은 실험주의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플럭서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5) 차주만(2003) FLUXUS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p.36.

16) 플럭서스 실험의 주요한 한 가지 면은 가능성이이다. 가능성의 방법과 결과들은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⑨ 예증주의 (Exemplativism)

예시성은 딕 히긴스가 예시성 학자 성명서인 다른 에세이에서 개요를 설명한 원칙이다. 예시성은 그것의 구축에 대한 의미와 이론을 예시하는 한 작품의 질이다. 모든 플럭서스의 작품들이 예시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상에 더 가까운 어떤 면에서 예시적이라는 느낌이 언제나 있어왔다.

⑩ 특수성(Specificity)

특수함은 특수하고, 자족적이고 그 자체의 모든 부분을 상징하는 한 작품의 경향을 함께해야한다. 대부분 예술 작품들이 새로운 의미를 축적하기 위해 의미를 누설하는 애매모호함에 의지한다. 한 작품이 특수함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의미를 알려준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철학적 애매모호함과 급진적 변화를 상징화해온 한 예술운동에서 모순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플럭서스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⑪ 시대의 동참(Presence in time)

많은 플럭서스 작품들이 시대에 맞춰 일어났다. 이것은 때때로 단명하는 용어로 언급되어왔지만 단명이라는 용어와 지속은 플럭서스에서 시간의 질과 구별된다. 그리스의 철학자들, 불교도분석과 인간경험의 존재에 관한 예술운동은 예술에서 시대적 요소에 관한 역점을 두어야한다.

⑫ 음악성(Musicality)¹⁷⁾

2) 플럭서스의 형성과정

플럭서스라는 명칭은 조지 마키우나스(George Maciunas)가 전통적인 예술형태와 양식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신간 잡지의 표제로 선정한 것이었다. 이 명칭은 1950년대 말부터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한 새로운 예술에의 욕구와 그 움직임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고, 일군의 실험예술가, 건축가, 작곡가, 디자이너들의 그룹 활동이 플럭서스라는 형틀을 잡아갔으며, 그것은 그룹 이상의 보다 큰 공동체로 자라났다. 플럭서스는 무엇보다 인생과 생활에 직결되는 삶의 예술을 지향한다. 예술을 관념주의와 형식주의의 허구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관념보다는 행위를, 형식보다는 내용을 택하고 그럼으로써 예술을 “인생의 모든 양상을 드러내는 마술의 거울로 만든다. 1960년대에 1970년대에 걸쳐 독일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던 국제적 전위예술인 플럭서스는 그 기질이나 아이디어에 20C 초의 구성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같은 전의예술의 조류와 대중소통 흥행물의 영향을 받았고, 보다 가까이로는 존 케이지를 통해 동양의 영향도 있었으며, 1960년대 초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분위기에 대한 거부도 적지 않은 몫을 차지

17) 차주만 (2003) FLUXUS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p.34.

한다. 이와 같이 다다¹⁸⁾정신에 가장 근접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플럭서스는 백남준에게 해프닝의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 아트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었다.¹⁹⁾

3) 플럭서스 경향에 대한 사례

마키우나스(George Maciunas), 히긴스(Dick Higgins), 케이지등과 플럭서스의 창립 멤버인 백남준은 전반기에 음악적 해프닝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음악을 시각화하는데 성과를 이루었다. 나중에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하여 '일시성'이 강하게 나타내며 플럭서스의 지향점인 '놀이정신'의 특징을 나타내고, 위성중개 공연을 통하여 플럭서스의 지향점과 양식, 그 밖의 플럭서스 개념들을 집중한다. 이러한 백남준의 플럭서스 정신이 컬렉션에도 퍼포먼스적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어 그의 예술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백남준 예술의 플럭서스 경향

백남준 비디오 아트연구가 '매체미학'(배운주, 2003;2004)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매체연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미학의 연구'는 예술영역의 측면에서 백남준 비디오 아트가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서 가지는 매체영역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매체(미디어)미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와 함께 백남준 비디오 아트의 매체적 특성연구에 관하여 백남준 비디오 아트가 하이퍼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징인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하이퍼 텍스트와도 비교될만한 특성을 가진다.²⁰⁾

(2) 오노 요코 예술의 플럭서스 경향

일본의 전설적 전위 예술가인 요코오노는 1960년 뉴욕에 건너 왔다. 챔버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공연장으로 개방하여, 스튜디오 공연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 1960년대 초 라몬테 영의 주도로 벌어진 이 시리즈는 잭슨 맥로, 딕 히긴스 등이 참가하여 플럭서스의 도래를 예고하는 해프닝이 되었다. 오노의 대표작으로는 관객들을 무대로 올라오게 하여 자신의 옷을 아무에나 잘라가게 하는<자르기(Cut Piece)>, 커다란 주머니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자다가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주

18) 다다: 제1차대전 중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 1619년 취리히의 카바레보르텔에서 트리스탄 차라, 후고 발Hugo Ball), 장 아르프 등이 사전의 1페이지에서 우연히 주웠던 말 '다다'를 사용. 대전의 불안속에서 합리주의 문명과 그 사회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운동인데, 수많은 데몬스트레이션과 스캔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뜻하지 않다'는 뜻의 허무의 다다를 부르짖음.-아래 현대섭(2003) 석사학위논문. p.6.

19) 현대섭(2003) 백남준Video Art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7.

20) 손형우(2009)미디어 예술의 결합현상의 사례로서 백남준 비디오 아트의 매체적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20.

머니(Bag Piece)>등이 있다. 1969년 비틀즈의 존 레논과 세 번째 결혼을 한 후에 플릭서스보다는 히피운동에 열중하였다. 1980년대 레논이 죽고 난 후에는 레논의 음악을 다시 선보이는 작업에 몰두하는가 하면 작곡을 하거나 플릭서스 소품을 제작하는 등의 창조 작업에 정진하고 있다.²¹⁾

2. 퍼포먼스의 개념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적 개념으로서 기존의 예술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예술 운동이자 표현행위를 일컫는다(서연호, 1997).²²⁾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말을 통해서, 혹은 악기나 기구나 가장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아닌, 어떤 상상적이고 모험적이며 창조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연희라고 하며, 연행은 연희의 행동성을 뜻하는 말이다(서연호, 1997).²³⁾ 이탈리아의 작가 만조니(Piero Manzoni)는 살아있는 사람 몸에 사인한 후 좌대에 올리며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시도했다. 또한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가격을 써 놓고 관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배설물을 캔에 담아 밀폐시킨 후 “예술가의 똥, 내용물, 30그램, 신선하게 보존됨, 1961년 5월에 생산되고 저장됨”이라는 라벨을 붙여 같은 무게의 금값에 판매하기도 했다. 자신의 배설물을 캔에 담아 밀폐시킨 후 “예술가의 똥, 내용물, 30그램, 신선하게 보존됨, 1961년 5월에 생산되고 저장됨”이라는 라벨을 붙여, 같은 무게의 금값에 판매하기도 했다.²⁴⁾ 퍼포먼스(Performance)는 개념미술의 관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체 그 자체를 통하여 실행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미술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에 주목받게 되면서 고정된 관념을 깨고 현대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전개된 경향을 띠고 있다. 퍼포먼스라는 말은 실로 광범위하게 쓰여 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고자 하는 수단 즉, 의사소통 행위가 발생하고, 미술에 있어서 회화나 조각 등의 작품

21) 백샘이(2002) 플릭서스 예술을 응용한 21세기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석사학위 논문.p19,20.

22) 이애현(1999) 퍼포먼스개념을 통해서 본 연행으로서의 굿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

23) 연행이란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말을 통해서, 혹은 악기나 기구나 가장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아닌, 어떤 상상적이고 모험적이며 창조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연희라고 하며, 연행은 연희의 행동성을 뜻하는 말이다.(서연호, 1997) 이애현 (1999) 퍼포먼스개념을 통해서 본 연행으로서의 굿 연구. p5.

24) 이경민(2009) 개념미술의 특성을 활용한 미술교육수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8. -마순자, “개념미술에서의 아이디어의 의미”, 『현대미술의 동향』(서울: 미진사, 1994), -이경민(2009) 개념미술의 특성을 활용한 미술교육수업방안 연구,p5.

에 의하지 않고 미술가의 육체적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조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 금세기 들어 자주 전위예술의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프닝(Happening), 이벤트(Event)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²⁵⁾ 퍼포먼스는 회화나 조각 등 조형 미술에서 충족할 수 없는 표현 욕구를 관람자와의 즉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작가의 관념과 행동을 전달하는 예술행위이다. 퍼포먼스의 작가는 미적 대상의 결과적 표현에서 벗어나 실제 시간 속에서 과정적 행위의 표현을 하며, 그 전 작가들이 고민하던 숙련된 기술과 매체의 선택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미술관에서 나와 관객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처럼 퍼포먼스는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특징을 신체의 미학, 관객참여성, 총체적 예술의 표현, 일회적 과정으로의 미술로 분류하여 설명되었다.²⁶⁾ 신체의 미학, 관객의 참여성, 총체적 예술의 표현, 일회적 과정으로의 미술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퍼포먼스는 신체를 이용한 측면에서 신체예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리기도 한다.²⁷⁾

1) 해프닝(Happening)

해프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킬비(M Kirby)에 의하면 해프닝의 요체는 선 논리적인(allogical)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해프닝은 무대 위의 구성이나 줄거리가 없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고 방문객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장소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싫든 좋든 그 사건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매일 매일의 경험만큼이나 다양하고 열려져 있고, 흐르고 있는, 그리고 모방하지 않은 형식을 경험할 수 있다.²⁸⁾ 해프닝(Happen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연히 발생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25) 김경민(2003) 퍼포먼스로 본 샌디 스코틀랜드의 사진세계, 경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26) 유순주(2010) 다양한 미적가치이해를 위한 퍼포먼스 수업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8.

27) 유순주(2010) 다양한 미적가치이해를 위한 퍼포먼스 수업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9-32.

28) 김경민(2003) 퍼포먼스로 본 샌디 스코틀랜드의 사진세계, 경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2) 이벤트 (Event)

이벤트는 긍정적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독특하고 비 일상적인 사회문화적 체험내용을 이벤트는 긍정적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독특하고 비일상적인 사회문화적 체험내용을 참여자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배경으로 함께 향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 이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Getz(2007)는 이벤트를 문화, 축하 이벤트, 정치, 정부 이벤트, 예술, 연예이벤트, 사업, 교역 이벤트, 교육, 과학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오락이벤트, 개인 이벤트 등의 형태로 분류했다²⁹⁾.

해프닝(Happening)의 사전적 의미는 우연히 발생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나 해프닝이 미술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작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에 의해 1952년에 블랙마운틴 대학에서 행해진 일종의 연극, 음악, 미술 등을 통합해 시도된 것을 최초로 보고 있다.³⁰⁾

3) 퍼포먼스의 전개과정

(1) 백 남준 (1932-2006)

백남준에게 미술가로서 방향제시한 결정적 영향을 끼친 존 케이지(John Cage)는 비디오 예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백남준이 음악으로 출발했던 배경이 흡사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존 케이지(John Cage)가 60세 되던 해, 1972년 촬영된 작업으로 백남준의 예술세계형성에 큰 영향을 준 아방가르드는 작곡에 대한 오마주³¹⁾ 작업이다.³²⁾

(2) 요셉 보이즈 (Beuys Joseph. 1921-1986)

요셉 보이즈(Beuys Joseph)의 작업은 난해하면서 신비하고 섬뜩한 모습도 보인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재료에 자신의 결점을 부여함으로써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³³⁾.

29) 김영석(2013), 이벤트 참여 동기가 체험몰입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30) 송윤희(2007)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 수업 방안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31)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

32) 채성희(2010) 퍼포먼스(Performance) 예술의 매체별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1.

33) 채성희(2010) 퍼포먼스(Performance) 예술의 매체별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0.

3. 아방가르드 패션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아방가르드 (Avant-garde)’는 원래 ‘전위(vanguard)’ 즉 소속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초에서 활동하는 분견대나 별동대를 의미하는 프랑스 군대용어이다.³⁴⁾

아방가르드 패션에서 표현된 퍼포먼스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방가르드 패션

		
<p><그림 1> 아방가르드 패션 남자스타일 Prada Mens 2009 Spring 출처;Style. com.</p>	<p><그림 2> 아방가르드 패션 남자스타일 Dior Homme 2009 Spring 출처;Style. com.</p>	<p><그림 3> 얼굴 없는 미녀들 아방가르드 패션, 복면수영복 Maison Martin Margiela Haute Couture 2009 F/W Paris 출처;Style. com.</p>
		
<p><그림 4> 아방가르드 패션 A.F. Vandevorst 2015 F/W 출처;Style. com.</p>	<p><그림 5>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미래의 아름다움: 일본 패션 30년 출처;Style. com.</p>	<p><그림 6> 올가을엔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Undercover 2008 F/W 출처;Style. com..</p>

34) 팽문영(2010), 영국과 일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Ⅲ. 플렉서스 퍼포먼스의 컬렉션 연출 분석

지금까지 플렉서스의 탄생, 개념, 형성과정, 퍼포먼스의 전개과정, 컬렉션의 개념 및 세계4대 컬렉션 등의 고찰을 통하여 본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마무리되었고 이연구의 주제인 컬렉션에 나타난 플렉서스 퍼포먼스의 연출이 표현된 컬렉션을 1990년 중반 이후 파리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 매 시즌마다 발표되는 컬렉션 중 퍼포먼스적 요소가 비교적 강한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살라안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컬렉션 퍼포먼스 분석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이 섹시하고 로맨틱한 이유는 천부적인 바이어스 커팅 감각이 바디 라인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연극과 같은 무대장치와 퍼포먼스 같은 패션쇼연출 때문이다. 그의 패션쇼 장소로는 개인 매종이나 호텔, 박물관 등을 빌려 쇼의 테마에 맞춰 연출하는가 하면 버려진 공장, 창고와 같은 독특한 장소를 이용하여 장소의 확장은 때론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그의 쇼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머가 동원된 재미있는 연극 같은 쇼라 할 수 있다. 의상은 섹시하고 여성적인 무드를 자아냈으며 포도주 창고라는 로맨틱한 매개물을 통해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었다.

21세기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은 마치 살아있는 빅토리안 인형을 연상시키듯 하얀 스타킹과 리본이 달린 서스펜더, 과장되게 부풀려진 투명한 소재의 소매, 그리고 솜사탕과 같이 끝없이 위로 부풀려진 헤어 등 그가 보여주는 세계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다.³⁵⁾ 존 갈리아노는 “패션계에서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건축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칼라거필드는 “새로운 패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료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 20세기 프랑스철학자 진 바드릴러드는 “신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견해를 밝히고, “새로운 에로틱 세계의 모든 마술적 요소는 사라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신체는 과학계 노출될지라도 기술적 장치로서만 존재한다.”³⁶⁾

35) 출처: Style.com.

36) Gerda Buxbaum.(1999) ICON OF FASHION-THE 20th CENTURY-PRESTEL pp.172-173.



<그림 7> John Galliano 2004 S/S Paris

<그림 7>은 2004 S/S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은 마치 살아있는 빅토리아 인형을 연상시키듯 하얀 스타킹과 리본이 달린 서스펜더, 과장되게 부풀려진 투명한 소재의 소매, 그리고 솜사탕과 같이 끝없이 위로 부풀려진 헤어 등, 그가 보여주는 세계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메이크업과 모델들의 표정 그리고 음악 등 마치 인형연극을 보러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쇼의 여러 요소들을 매우 조화롭게 응용하였고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레이스 업 앵클 부츠와 다양한 컬러의 미니 핸드백 또한 흠잡을 때 없이 매력적이었다. 베이비 돌 행진에 이어 그가 자주 선보이는 19세기 물랑루즈를 연상시키는 코르셋 캣워크가 이어졌는데, 짙은 진달래색과 블랙을 이용, “more is more”를 외치듯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된 악세사리 등 그가 이번 컬렉션에서 찾으려 했던 ‘new proportion’을 골고루 선보였다.³⁷⁾



<그림 8> John Galliano 2006 S/S Paris

<그림 8>은 쇼의 장소는 예전의 화려했던 파리 살롱 가의 체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머가 동원된 재미있는 연극 같은 쇼이며 무대는 관객과 같은 층으로 무대와 객석이라는 형식의 틀을 깨고 관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모델을 감상할 수 있어서 친근감을 느끼며 프로시니엄 아치가 제거된 높았던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하여 연극과 같은 컬렉션이라는 장르가 접목이 되어 관객들이 관조적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컬렉

37) 출처: Style.com.

션이었다.³⁸⁾



<그림 9> John Galliano 2006 S/S Paris

<그림 9>는 존 갈리아노에게서 확실히 기대해도 좋을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엔터테인먼트’다. 가끔 스타일을 메모하거나 드레스를 스케치하는 관객들도 있다. 뚱뚱한 중년부인과 그녀의 풍만함을 사랑하는 그녀의 연인, 립스틱을 질게 바른 레즈비언, 수염을 기른 복장 도착자 커플 등 다양한 스타이의 커플들을 내보냈다.³⁹⁾



<그림 10> John Galliano 2008 S/S

38) 출처: Style.com.

39) 출처: Style.com.

<그림 10>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자신의 옷을 포함해 여러 의상들의 레퍼린스를 선 보였는데, 비대칭적인 장미 러플 장식이 달린 푸와레 시대코트, 검정 벨벳과 투명 레이스에서부터 핑크 및 글썩 시폰으로 이어지는 갈리아노 특유의 다양한 바이어스 컷 가운 등이 있었다.⁴⁰⁾






<그림 11> John Galliano 2012 F/W Paris

<그림 11>은 애니메이션 <장화 신은 고양이>의 감직한 주인공처럼 러플 케이프와 깃털 달린 오버 사이즈 베레, 바로크 패턴과 싸이하이 스타킹, 하이넥 트렌치코트, 케이프 숄더 등은 승마보다 영국풍 의상에 더 가까웠다. 몸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러플 드레스와 풍성한 플리츠 드레스, 비즈가 촘촘히 박힌 시스루 보디수트는 섹시하고 로맨틱한 갈리아노 DNA를 그대로 복제한 아이템. 한편 트렌치코트는 더 다채롭게 변신했다. 주름과 단추로 포인트를 주거나 러플과 모피, 케이프형태 등등. 분명한건 무성한 소문에 둘러싸인 빌 게이튼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40) 출처: Style.com.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의 컬렉션의 분석은 아래의 <표 3>으로 요약했다.

<표 3>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의 컬렉션의 분석

연도	테마	퍼포먼스 연출 분석
2006 S/S Paris	모든 것은 아름답다 (Everything is beautif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 안에 3가지 스테이지를 구상하고 쇼 중간에 무대장치를 변화시켜 연출. - 각 스테이지에 맞는 오브제(가구, 화분, 조명, 기타, 네온사인 등)들을 배치함. 
2008 S/S Paris	회색 정원 (Grey Gard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워킹하는 런웨이 중간마다 여러 가지 무대를 구성하여 오브제들을 배치 : 화려한 테이블, 움직이는 회전목마, 나무로 된 길과 잔디, 전구와 네온사인 등 • 모델들의 퍼포먼스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웨이의 구성된 각기 다른 장소마다 거기에 맞는 포즈와 연기를 연출함 • 특수무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의 길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풍치를 인위적인 바람을 통하여 연출함. - 조명을 어둡게 하고 네온사인과 붉은 조명을 이용하여 밤거리를 연출함. 
2012 F/W Paris	부츠(hugh shoes.)	

2.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 퍼포먼스 분석

알렉산더 맥퀸은 92년 처음 자신의 컬렉션 발표를 통해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독특한 장소와 재미있는 연출로 유명한데 의상은 물론 이벤트의 드라마틱한 주변에도 포커스를 맞춘다. 십자가가 있는 성당에서 상반신 노출을 하는가 하면 엉덩이가 반쯤 노출되고 모델들이 기이한 분위기로 기존의 미의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모호한 채로 등장한다. 98 S/S컬렉션은 런던 템즈강 근처의 폐기물 처리장을 쇼 장소로 선택하고 무대는 긴 일자형으로 투명한 방풍유리로 만들어졌다. 쇼 시작은 번쩍이는 조명과 갑작스런 굉음으로 천등과 번개를 연출하였고 강렬한 비트의 테크노 음악이 쇼 장을 가득 메운다. 투명한 무대 속의 푸르스름한 조명과 환상적 무드는 정돈된 모델들의 캣 워크와 테크노 음악에 잘 어울렸다. 의상은 섹시하고 남성의 여성 착장 경향이 두드러졌다. 컬렉션 중에 갑자기 음악이 끊김을 연출하거나 천장에 스프링 쿨러를 장치하여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한 연출을 한다. 실내공간의 외부적 환경으로의 전환과 실내에서도 인공적인 기상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델들은 비를 맞으며, 유유히 무대 위를 걸었고 헤어스타일도, 메이크업도 의상도, 비에 젖어들어 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플렉서스 퍼포먼스 컬렉션을 연출하였다.⁴¹⁾



<그림 12> Alexander McQueen 98 S/S

<그림 12>는 알렉산더 맥퀸의 모델은 즉흥적으로 묘사된 단 하나의 의상을 입은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이 패턴은 더 이상 동일 한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며 즉석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즉흥성을 설명한다. 알렉산더 맥퀸의 모델은 즉흥적으로 묘사된 단 하나의 의상을 입은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이 패턴은 더 이상 동일 한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며 즉석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즉흥성을 설명한다. 관객은 환호하고 한편의 퍼포먼스를 즐기는 관객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패션은 착용해야 하며 그 착용한 모습이 미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뒤

41) 출처: Style.com.

로하고 패션을 시각예술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새롭다.42)



<그림 13> Alexander McQueen 2004 F/W Paris

<그림 13>은 커다랗고 황량한 원형 런웨이가 이를 증명했다. 모델들은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타이트한 컬로 연출된 채 외계인 복제인간처럼 원형 무대 위를 느리게 걸었고, 이런 단조로움은 의상에도 적용되어 대부분 누드톤으로 등장했다. 물론 이는 풍성한 장식에 묻혀 있던 커팅을 보다 부각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테크닉의 귀재인 맥퀸답게 연구 요소들은 여전히 풍성했다. 레이디 수트, 매끈한 악어가죽부터 폭신한 몽골리안 양털 코트 등 그의 테일러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으며, 앞부분이 드레이핑 처리된 섹시한 저지 드레스, 디자이너가 애착을 가졌던 점프 수트도 등장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름다웠지만 단조로웠다. 미래적인 요크와 이브닝 가운 위를 수놓은 잉크블루나 퍼플 플로랄 프린트만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대담한 장식이었다. 43)



<그림 14> Alexander McQueen 2009 S/S Paris

42) 출처: Style.com.

43) 출처: Style.com.

<그림 14>는 환경과 지구가 주된 테마였다. 런웨이 입구에는 움직이는 지구의 여상이 돌아가고 있었고, 코끼리, 기린, 북극곰, 사자 등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 인형들이 런웨이를 장식했다. 맥퀸은(Alexander McQueen) 그 이유를 다윈의 적자생존과 산업화에 의해 파괴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 심각성이나 교훈이 너무 진지하게 드러난 쇼는 아니었다. 전반부는 훼손되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다뤘는데, 맥퀸의 강점인 로맨틱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선보였다. 전체적으로 시그니처 특인 프록 코트, 스키니 팬츠, 아워글라스 실루엣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나무무늬 옷들과 몇몇 드레스에서만 느낌이 달랐다. 짧은 누드 망사 시프트 드레스 속으로 핑크와 레몬 꽃을 넣었고, 플라퍼 드레스를 통해 올 시즌 가장 탁월한 프린지로 꼽히는 두 가지, 즉 몸을 두르는 그레이 플니지와 흔들거리는 핑크 필라멘트 프린지를 선보였다. 그의 섬세한 꾸뛰르는 들여다볼수록 감동적이었는데, 레이스 속으로 보이는 꽃과 새 모양의 디테일은 슈즈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재킷, 레깅스, 코튼 드레스의 밝고 다채로운 컬러와 프린트도 돋보였다. 쇼가 21세기 진화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때에도 크리스털 장식 드레스들과 광택 있는 수트 덕분에 분위기가 어둡지 않았다. 44)



<그림 15> Alexander McQueen 99 S/S
잉크를 풀 물로 가득한 아크릴 위로 금색 비를 맞으며 걸어 나옴

44) 출처: Style.com.



<그림 16> Alexander McQueen 2000 S/S 컬렉션

<그림 16>의 배경음악은 터키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아라비안나이트 같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고 한다. 피날레는 얇은 풀을 뚫고 튀어나온 대못들의 아찔한 광경을 배경으로 검은 차도르 차림의 모델들이 줄에 매달려 서커스 적인 패션쇼를 보여주었다. 주로 흰색이 사용된 도발적이고 야성적인 의상은 관능적이었고 Showpiece로 불리는 마스크와 몸체로 이어지는 구조물 들은 종교적 사회적 주술적인 이미지를 지녔으며 포르노 그래피를 연상하게 하였다. 모델이 패션쇼의 극적 연출로 공중에서 퍼포밍하는 장면은 계획성과 일회성이 가미된 패션과 서커스가 만난 퍼포먼스였다. 더욱이 맥퀸은 피날레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조기패턴의 트렁크를 선보여 자신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계획에 없었던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서커스 같은 공연과 패션쇼를 접목시킨 것은 착용이라는 기본적 의미 외에 감상할 수도 있다는 패션의 시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맥퀸의 컬렉션은 십자가 있는 성당, 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이 독특한 장소와 재미있는 연출로 유명한데 의상 뿐 아니라 드라마틱한 주변에도 포커스를 맞추었다. 그의 컬렉션은 패션은 착용해야하고 미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틀을 깨고 시각예술의 흐름으로 접근한 것이 특이했다. 45)

45) 출처: Style.com.



<그림 17> Alexander McQueen 2006 F/W Paris

<그림 17>은 알렉산더 맥퀸이 자신의 쇼에서 놀라운 테크노 매직을 선보였다. 텅 빈 글라스 피라미드 안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신비로운 무드를 연출한 가운데 하얀 드레스의 물결은 무대를 황홀하게 물들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이번 컬렉션에서 자신이 뿌리인 스코틀랜드 전통을 연구하고, 90년대 초기 런던에서 활동할 당시 애용했던 타탄 패턴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탐구하려고 했다.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10 S/S

<그림 18>은 맥퀸이 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종말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체로 변화하고, 빙하가 붕괴되면 인간은 다시 바다로 복귀할지 모른다고 했다. 맥퀸의 메시지는 바다파충류 문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허리가 잘록한 벨트 스커트 실루엣으로 승화시킨 짧은 드레스를 통해 전달되었다.⁴⁶⁾

46) 출처: Style.com.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의 분석은 아래의 <표 4>으로 요약했다.

<표 4>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의 분석

연도	테마	퍼포먼스 연출 분석
98 S/S	비 (rain.)	단 하나의 의상으로 런웨이를 연출.
		
99 S/S	먹빛(a shade of Indea ink.)	미술과 패션의 총체예술로 연출.
		
2000 S/S	환영(an illusion.)	바람과 인체를 오묘하게 연출.
		
2004 F/W Paris	구출 (Deliverance)	- 맥퀸이 디렉팅을 담당하고 리플 드레스의 반복적 출연으로 하여금 단순한 시각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 실물인지 시각효과인지 관객을 어리둥절 하게함.
		
2006 F/W Paris	쿨 로덴의 과부 (Widows of Cullo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무대 - 무대 가운데 텅 빈 글라스 피라미드 설치. -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신비로운 무드를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적 특수무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퀸이 디렉팅을 담당하고 발리 윌시가 촬영한 Kate moss의 홀로그램 영상 연출. 
2009 S/S Paris	곤충(a bug.)	<p>악어 파충류를 연출.</p> 
2010 S/S	해양(Atlan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한 2대의 로봇 같은 영화 카메라를 무대 양 중앙에 설치. • 테크노적 특수무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위에 누운 나체의 모델위로 뱀이 꿈틀거리는 나이트의 비디오 영상을 배경으로 상영하여 파충류적 이미지의 디자인 컨셉을 극대화시킴. -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채택하고 동적인 이미지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려 했던 시도함. 

3. 후세인 살라안 (Hussein Chalayan)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후세인 살라안(Hussein Chalayan)은 개념적 디자이너로서 예술가 중 가장 논리적인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수족을 거부하거나 옷에 아무렇게 여밈을 내는 디자인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옷감이다.⁴⁷⁾ 패션계에 가장 매력적인 이벤트로 알려진 후세인 살라안의 마술과 같은 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패션상의 최고상인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한 바 있고 93년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94년에 자신의 레벨을 선보였다. 99 S/S 컬렉션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있는 아틀란티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지오토포픽스(Geotropics : 굴지성)라는 주제로 열렸다. 무대는 흰색으로 지적이고 차가운 미니멀리즘을 취했다. 기존의 패션쇼에서 들려지던 하우스뮤직과는 다르게 흰색으로 감싼 합창단이 라이브로 연주한 배경음악이 돋보인 한편의 퍼포먼스였다. <그림 19>는 음악과 패션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 총체예술로서 설명된다⁴⁸⁾.



<그림 19> Hussein Chalayan 99 S/S 런던 컬렉션

<그림 19>는 무대와 벽이 무 장식의 흰색으로 처리된 발레극장에서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와 흰 벽을 가르자 피아노 건반이 보이고 배경음악은 피아노 라이브 연주였다. 미동도 없이 걷는 절제된 캣워크는 조형적인 심플한 무대와 피아노 소리와 잘

47)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 PRESTEL pp.146.

48) 출처: Style.com.

어울렸다.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마네킹과도 같았다. 흰색의 의상들은 아방가르드한 디테일을 포인트로 웨어러블 하고 여성적인 실루엣을 선보였다. 한 남자가 스커트에 공기 파이프를 연결하고 불륨을 높이자 스커트 단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바디모양으로 조립된 흰색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등장하자 어린 소년이 리모트 컨트롤을 조절하자 드레스는 서서히 해체되면서 날개처럼 퍼졌다. 패션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움직임을 시도한 미래적인 패션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환호는 그칠 줄 몰랐다. 피날레는 5명의 모델이 무대자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아래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2000 F/W 컬렉션. 새들러TM 웰스 극장에 마련 된 무대는 한편의 연극무대처럼 평범한 거실로 꾸며졌다. 흰색의 깔끔한 벽에 그림이 걸려있고 TV, 꽃병, 나무원탁과 네 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무대의 오브제로 인식할 뿐 그 용도를 알지 못했다. 터키 민속음악이 라이브로 연주되어 흐르고 4명의 모델들은 슬립드레스 차림으로 각자 의자 옆으로 가 의자 커버를 벗겨 입기 시작하였다. 회색 체크 의자커버는 즉석에서 멋진 드레스가 되어 모델들에게 입혀졌고 남아 있는 나무의자는 몇 번의 조작으로 여행용 가방으로 둔갑해 버린 모험적이고 유머러스한 쇼가 되었다.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실연된 퍼포먼스로서 시종일관 침묵 속의 불꽃같은 디스플레이이다. 관객들의 환호성에 한 명의 모델이 남아있는 원탁의 안쪽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 손잡이를 올리니 원 탁 모양의 층계식 스커트가 되었다. 이번 쇼는 패션과 인테리어의 경계를 허문 기능적이고도 웨어러블한 의상의 정수를 보여줬다. 영국최고의 패션상을 수상한바있는 후세인 살라안의 컬렉션은 기존 패션쇼에서 나오던 하우스뮤직과는 달리 흰색으로 감싼 합창단이 라이브로 연주한 배경음악이 돋보인 음악과 패션쇼가 각각의 특성을 드러낸 총체예술로서 나타난 퍼포먼스였다. 또한 스커트에 공기파이프를 연결하여 한 소년이 리모트컨트롤로 조절하여 드레스를 해체하면서 날개처럼 퍼지는 패션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움직임을 시도한 미래적인 패션 퍼포먼스로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실연된 퍼포먼스로서 침묵속의 불꽃같은 디스플레이였다.⁴⁹⁾

49) 출처: Style.com.

<그림 20>은 비행기, 자동차 등 현대 테크놀로지의 영향, 자연의 영향을 시각화 하였다.



<그림 20> Hussein Chalayan 2000 S/S

<그림 21>, <그림 22>은 옷과 가구사이의 경계 파괴하였고 가구와 일체가 하나 됨을 표현했다.



<그림 21> Hussein Chalayan 2000 F/W



<그림 22> Hussein Chalayan 2000 F/W

<그림 23>은 쇼의 클라이막스에 6명의 모델이 무대에 등장하며 그들 중 3명의 모델은 꽃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이는 슈가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다른 3명의 모델은 작은 해머를 가지고 깨지기 쉬운 유리를 산산히 부숴 버린다. 모델들은 거의 나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통해 결국 인체는 무(無)의 형태로 돌아가게 됨을 보여준다⁵⁰⁾.



<그림 23> Hussein Chalayan 2001 S/S

50) 출처: Style.com.

<그림 24>는 평범한 느낌의 그의 작품들은 쇼를 진행하는 동안 숨겨져 있던 폴리우레탄 튜브의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면서 의도적인 변형을 연출하였다. Hussein Chalayan 2003 F/W 평범한 느낌의 그의 작품들은 쇼를 진행하는 동안 숨겨져 있던 폴리우레탄 튜브의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면서 의도적인 변형을 연출하였다.⁵¹⁾



<그림 24> Hussein Chalayan 2003 F/W

<그림 25>에서 후세인 살라안은 사람의 도움 없이 헴라인(hemline)이 모아지며 지퍼로 잠긴다. 각각의 모델이 입은 스커트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숨을 쉬는 듯 변형된다. 이것은 런던에 있는 엔지니어링 컨셉 크리에이션 회사인 2D3D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다.



<그림 25> Hussein Chalayan 2007 S/S

51) 출처: Style.com.

<그림 26>은 'Airborne'에서 Chalayan이 Swarovski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LED테크놀리지를 사용한 혁신적인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그림 26> Hussein Chalayan 2007 S/S

<그림 27>은 Hussein Chalayan 2007 F/W 'Airborne'에서 Chalayan은 Swarovski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변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7> Hussein Chalayan 2007 F/W

<그림 28>에서 정교하고 화려한 픽셀 그리드를 통해 발산되는 첨단 테크놀로지로서 빛을 통하여 Chalayan의 드레스의 극적 변신을 표현하고 있다.⁵²⁾





<그림 28> Hussein Chalayan 2008 S/S



52) 출처: 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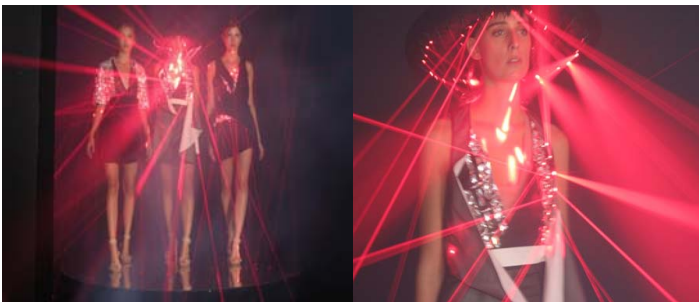
후세인 살라안(Hussein Chalayan)컬렉션의 분석은 아래의 <표 5>로 요약했다.

<표 5>후세인 살라안(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의 분석

연도	테마	퍼포먼스 연출 분석
98 S/S	기술시장 (technomart)	하나의 옷감으로 연출
		
2000 S/S	자연 (Na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적 특수장치 - 등장한 어린아이에 의해 리모컨 조정으로 옷의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함.
		
2000 F/W	가구를 입다 (Wearable archit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 활용 - 무대 위 의자 : 커버를 벗겨 모델이 착용하자 드레스의 형태로 완성이 되고 의자는 접혀 수트케이스로 변형되는 연출을 함. - 무대 위 테이블 : 테이블을 모델이 착용하자 스커트의 형태로 변형됨.
		

		
2001 S/S	채광창 (vent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들의 퍼포먼스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막스에 6명의 모델이 무대에 등장하며 그들 중 3명의 모델은 꽃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이는 슈가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다른 3명의 모델은 작은 해머를 가지고 이 깨지기 쉬운 유리를 부숴버리고 모델들은 거의 나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연출됨. 
2003 F/W	친척 여행 (Kinship Journe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펫린을 이용하여 모델이 점프 퍼포먼스 연출. - 가구들을 다른 형태로 제작하여 배치. - 커다란 풍선을 모델 등에 부착. • LED 전광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여 패션쇼 음악을 라이브로 연출 • 클라이막스에 4명의 모델이 옷에 달린 버클을 풀자 폴리우레탄 튜브가 튀어나오면서 옷의 형태가 변형됨.

		
<p>2007 S/S</p>	<p>100 그리고 11 (One Hundred and Elev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다란 형태의 시계가 무대 정중앙에 배치됨 • 테크노적 특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 모터의 전동장치의 컨트롤에 의하여 전기의 힘으로 작동됨 : 헴 라인의 변형이나 지퍼의 여밈이 변형되는 것 등을 연출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2007 F/W</p>	<p>공기 운반 (Airbor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적 특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arovski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 정교하고 화려한 LED를 사용한 혁신적인 첨단 테크놀로지로서 빛을 통하여 Chalayan의 드레스의 극적 변신을 연출

		
2008 S/S	읽기 (Readings)	<p>• 테크노적 특수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arovski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 작품의 내부에 삽입되어 디자인 된 레이저 빔을 통해 크리스탈이 반사되어 빛을 발산하는 구조를 지닌 'Laser dress'를 연출함. - 무대바닥이 회전할 수 있게 설치되어 레이저 드레스의 극적효과를 극대화시킴.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럭서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플럭서스는 전통적, 보수적 순수 예술에 반기를 드는 예술의 사회화, 예술의 대중화, 예술과 생활의 재결합이라는 반예술, 비예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플럭서스는 이러한 반예술적 예술이념을 성취하기 위해 인터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형식, 즉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무용 등의 여러 장르들이 혼재하고 있으나 모든 장르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편재 없이 혼합되는 민주적 방법의 종합예술 형식을 정립시켰다.

둘째, 사회적 트렌드 형성의 예술을 추구하는 플럭서스 퍼포먼스가 컬렉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컬렉션에 나타나는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98S/S에서 2010S/S에 이르기까지 패션사이트Style.com과 wkorea.com을 참고하였다.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연구방법으로는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패션문화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3인의 컬렉션을 연구하였다. 존갈리아노(John Galliano)컬렉션에서는 타이트하며 체형의 윤곽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며, 화려한 소재들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며 단일성을 띤 퍼포먼스로서의 요소가 충분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에서는 기존의 패션쇼에서 들려지던 하우스 뮤직과는 다르게 흰색으로 감싼 합창단이 라이브로 연주한 배경음악이 돋보이며, 음악과 패션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 총체예술로서 설명되고 있다. 플럭서스와 인터미디어는 기술이 전기공학으로부터 전자공학으로 바뀌면서 탄생되었다.

셋째,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방가르드는 근대에 와서 사회 개혁론자들의 문화정치학에 사용되면서 현재를 비판하고 혁신시키려는 급진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고, 패션에서 아방가르드는 부르조아 계급의 근대적 가치와 서구의 절대적 이상美에 대항하는 스타일로 시작하여, 패션자체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전위적 디자이너들의 혁신적 스타일과 자신들의 가치관을 패션으로 표출하는 하위문화의 저항적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성의 혼돈과 부재를 표현했다.

넷째, 오늘날 플럭서스 퍼포먼스가 컬렉션에 기여한 사례에서 보면, 퍼포먼스적 요소가 비교적 강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악과 컬렉션이 어울어진 총체적 종합예술로서, 패션에 첨단테크놀로지를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패션 퍼포먼스로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고, 컬렉션장소의 고정화된 개념을 없애고

독특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모델이 미의 위주를 벗어나 누구나 모델로서 기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패션의 의미가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미적이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시각예술에의 접근을 시도하여 무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 관객들이 관조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연극과 같은 컬렉션의 장르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교훈을 얻음으로서 우리 컬렉션에서도 교훈삼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실험예술가들, 건축가들, 작곡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가까이 또는 변두리에서 플럭서스에 합류해 오고 있다. 추후 플럭서스 퍼포먼스가 컬렉션에 나타난 총체예술에 대해서 심화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권경용, 김규정 (2011). *INTER-MEDIA ART에서 착종(錯綜) 현상에 관한 고찰*. 예술과 미디어.
- 구보다 시게코 (2010). *나의 사랑 백남준*. 경기도 파주 : 응진 썬크빅
- 김기미 (1997). *플럭서스(fluxus) 예술에 나타난 사회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2007). *SF-AA-서울 컬렉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6). *20世紀 後期 美術에서 身體 記號의 意味 分析과 解析*. 아바카노비치와 키키 스미스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아름 (2012). *오노요코의 전위개념과 지시문 작업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 (2013). *이벤트 참여 동기가 체험몰입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0).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이미지 스타일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 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상식 (1995). *시각의 혁명, 감각의 충격, 미래의 해프닝, 해프닝의 미래*: 미래파와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실험에 대하여. 한국연극학.
- 남윤진, 김혜연 (2011). *현대패션쇼 퍼포먼스의 패션디자인 특성*. 한국디자인학회.
- 박대근 (2002). *추상표현주의와 행위예술에 있어서 행위성에 대한 연구 : 행위개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희 (2007). *퍼포먼스를 활용한 미술 수업방안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형우 (2009). *미디어와 예술의 결합현상의 사례로서 백남준 비디오아트의 매체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주 (2010). *다양한 미적가치이해를 위한 퍼포먼스 수업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용 (2002). *플럭서스 활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환, 전선자, 김진호 (2011). *플럭서스 예술혁명*. 서울 : 갈무리

차재훈 (2011). *시각예술에서 통합적 사고의 의미와 특징연구; 연구자의 <차이>연작
과 통섭적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현태섭 (2003). *백남준Video Art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 문헌]

Gerda Buxbaum. (1999). *ICON OF FASHION-THE 20th CENTURY-PRESTEL*.
AMY DEMPSEY. *Modern Era: A Guide to Styles, Schools & Movements 1860
to the Present*.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Edited by GEOFFREY HENDRICKS. *CRITICAL MASS: HAPPENINGS,
FLUXUS, PERFORMANCE, INTERMEDIA AND RUTGERS UNIVERSITY 1958-
1972*.
Thomas Kellein. *FLUXUS*, Thames and Hudson.
Ken Friedman (1998). *The Fluxus reader pbk*. Academy Editions

[기타 자료]

르네블록/전경희 옮김. *플럭서스*. 20세기 미술운동 총서 18, 열화당.
The LondonFashion book
Vogue Korea (1998). 별책부록 12월호

ABSTRACT

The Direction of Fluxus Performance Shown in Collections

Su-min So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Ae-Ran Jang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the multi-complex culture where a bond of sympathy beyond imagination forms. It is acquired through various cultur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thanks to both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advances in technology. Such characteristics of the time have enabled the public to break out of the existing frame and establish a new type of culture which is provocative and incorporates social deviance as well as arouses the desire of the people. Fluxus performance art is one example of how reflecting the mental state of the public is caused by the demand of the time.

With regard to the artistic value of fluxus performance art, which has led the art to form a social trend, it is considered that these performances have not only had a profound impact on modern art and culture but has also brought about great changes in collections. For the methods used to study the properties of fluxus performance shown in collections, this research refers to the fashion sites style.com and wkorea.com from 1998 S/S to 2010 S/S. In order to discover the artistic value of fluxus performance,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collections of John Galliano, Alexander McQueen, and Hussein Chalayan, all of whom represent the fashion culture of fluxus performances. John Galliano's collections are in harmony with colorful materials as well as reveal tight outlines of body shape.

The world John Galliano was trying to portray was lovely, using white stockings which reminded viewers of a living Victorian doll, a performance with hanging ribbons, excessively puffed sleeves made of transparent materials, and puffy hair that outstretched upward like a cotton candy. He harmoniously applied various factors in his shows including makeup, the facial expression of the models, and music, putting audience under the illusion that they were watching a puppet show.

Alexander McQueen's collection was full of the elements that made a performance imaginative, spontaneous, and homogeneous. In addition, McQueen showed a performance where the models disappeared backstage, wearing a single costume which was extemporaneously expressed and created on the spot. It can be regarded that such a performance had a uniqueness that would never be found in other collections. In Hussein Chalayan's collection, unlike the house music usually played in the common fashion shows, background music was sung by a choir covered in white. This stood out, and it is seen as an example of intermedia art, co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oncert music and fashion shows.

In conclusion,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luxus art shows that this new type of art takes an anti-art or inartistic stance that supports the so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art. It expresses a reunion of art and life against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ure art.

Second, the elements of fluxus performance which appeared from 1998 S/S to 2010 S/S have their unique traits. John Galliano showed a fantastic harmony with colorful materials, revealing tight outlines of body shapes. Alexander McQueen had his models disappear backstage wearing only one piece of clothing, indicating that the patterns used in his show were unique and that the same ones would never be found in other collections by making patterns right on the spot. And Hussein Chalayan's collection is regarded as an intermedia art that well portrayed the characteristics of both music and fashion show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fluxus performances shown in the collections of John Galliano, Alexander McQueen, and Hussein Chalayan,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by combining a future-oriented fashion performance with cutting-edge technology in fashion, it is possible to break from the existing stereotypical mind set by getting rid of fixed concepts and selecting distinctive places. Furthermore, through the lesson that a new genre of collections where

the audience can interact just like plays rather than taking a contemplative view has made rapid progress, so it is desirable to try to make a number of changes in our shows. Experimental artists, architects, composers, and designers from places nearby or in the outskirts have joined the fluxus movement. In the future, an in-depth study on intermedia art, in which fluxus performance is expressed collections, will be carried out.

Key words: fluxus performance, collections, the mental state of the public, fashion culture, intermedia art.

<감사의 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에 산업역군으로서 한 부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해서, 2000년대에 와서야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단 한가지 10남매의 장손부부이신 친정부모의 첫 자식으로 기쁨이 되고자, 부모에게 순종하여온 남편을 따라 부족했지만 봉양해온 시부모님께 기쁨이 되고자,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묵묵히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7. 9.

송 수 민 拜上